

■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평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 사업 유형 :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
- 회의일시
 - (1차) 2022.5.16.(월) 14:00~15:00
 - (2차) 2022.5.23.(월) 14:00~17: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22년도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단체(작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공연계의 해외사업이 위축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리두기 해제 등 공연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들로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연여건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외를 목표로 하는 공연사업도 해당 나라의 상황에 따라 긴장을 늦출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해외시장을 타진하고 있는 단체들의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현실에 해외유통의 주된 파트너인 중국과 대만, 일본 공연계 상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단 7건 만이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 1건은 심의기간 도중 해외 파트너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원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심의위원 모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단체들에게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작품의 예술성 및 해외시장 경쟁력(30%), 해외진출 전략의 충실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심의 기준으로 하여,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등 제반상황과 작품성을 상세히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총 3건의 지원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번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사업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자 하였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공연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확실성 또한 이번 심의의 큰 결정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뷰 심의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성실히 임해주신 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작뮤지컬의 초기 해외유통은 보통 초청공연의 형태였으나 현재는 라이선스 수출, 공동제작, K-Pop스타를 매개로한 로컬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 방식을 통해 창작뮤지컬의 해외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공모가 단순히 어려운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해외공연개최를 위하여 사업적 리스크를 낮추고 공연 본질에 집중하여 제작하실 수 있도록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작뮤지컬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확장하고 계신 여러 단체의 헌신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2022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심의위원 일동